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5월 2일(주일) 제1342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

5월은 가정의 달 ... 어린이, 아버지, 스승, 입양, 부부 의미 되새겨
5월 15~16일 입양위탁 홍보 토크쇼 신애라 간증, 제이홈 부스 운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행복한 선물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서로 표현하는 의미 있는 달이다. 온누리교회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뜻깊은 기념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5월 주일예배 설교 주제가 '가정'이다. 어린이, 아버지, 스승, 입양,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이다.

5월 1일과 2일은 어린이주일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다음세대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꿈이자리(초등학생)에서는 예배당예배에 참석한 학생에게 간식과 선물, 영상예배를 드리는 학생에게는 선물(우편)과 기프트콘을 보내준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서는 어린이주일 특별영상예배를 드린다. 어린이들에게는 선물과 함께 교역자 축하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5월 8일과 9일은 아버지주일이다.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존중을 표현할 예정이다. 토요일, 일요일 예배당예배에 참석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준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온누리교회는 5월 15일과 16일 입양위탁을 홍보하는 행사를 한다. 이날 온누리교회 예배에



서는 토크쇼 신애라 집사가 특별간증을 하고, 교회 로비에서는 사회선교부 제이홈(입양위탁가족팀)이 주관해서 입양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이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뜻깊은 날이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

을 일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로 제정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5월 3일 행복드림 콘서트!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드디어 막 오른다. 5월 3일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이 업로드된다.

신청자들(223명)은 5월 3일 이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4월 25일까지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를 보낸 신청자(64명)를 위한 특별 개인영상을 제작한다. 행복드림 콘서트 전체 녹화본 영상에 신청자의 영상편지를 USB에 함께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복드림 콘서트 요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단체채팅방(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다. 5월 23일까지 단체채팅방에 요청자들이 기도제목을 올려주면 함께 중보기도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로 모여라!

5월 11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줌(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5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이 대상이다. 개인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 소속을 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무공동체 성도들에게 온라인 양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신앙 성장을 돕는다. 전도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하는 맞춤 온라인 공동체이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 신앙생활 전반을 돕는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와 이준인 목사(J4U 청년부)가 담당한다. 온라인커뮤니티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신청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링크(Zoom)를 보내준다.

여성민 목사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결과

1,329명, 3억8천만 원 작성

지난 4월 24일과 25일 실시한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신규 및 증액 1,329명, 후원금 3억8천만 원을 작성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성도님들이 귀하게 후원해준 헌금을 지구촌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하는데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은 끝났지만 홈페이지(www.betterworld.or.kr)에서 계속 정기후원약정을 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올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세네갈 소득증대 사업, 우간다 난민촌 유치원 건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정치학, 성경적 정의란 무엇인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낙태문제는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낙태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지 아닌지가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성혼 논쟁 역시 이 결함이 국가가 보호하려는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한지가 논쟁거리이다. 따라서 그 바탕이 되는 도덕적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 즉 인본주의 신학은 그 기준을 바꾸어 버린다.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학 정치철학 교수로 '정의'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다. 그 강의를 정리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람마다 정의(justice)를 다르게 정의하기(define)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수행한다. 세상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첫째, 공리 혹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관점. 둘째,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관점. 셋째,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불완전하며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는 공동선과 미덕의 추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명확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팀 켈러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같은 이름의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정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정의에 대해 말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 불법, 불공평이 판치고 있다. 성경은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한 잣대로 그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 정의를 실행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관대한 정의의 시행을 명령한다.

성경적 정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고, 은혜를 베풀음으로 이루는 정의이다. 이 시대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사랑의 마음이며,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사회정의이다. 어느 한쪽이든 포기하면 온전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의로운 사랑, 사랑이 가득한 관대한 정의이다.

체장암으로 투병중인 팀 켈러 목사의 <부활을 믿다>라는 책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로 소개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낭독하신 이사야의 글을 통해 밝힌 사명선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 밝힌다.

이 책에서 그는 성경적 정의의 구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성경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명령했으며, 가난한 자와 부자를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고, 뇌물 때문에 편파적으로 재판하지 못하게 했다. 둘째,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것과 받은 것은 받은 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고, 각 사람은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언젠가 자신의 달란트로 남긴 이윤과 그것의 사용 방식에 대해 주인

앞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함을 경고한다. 그래서 많이 많은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 것을 추천한다. 셋째, 약한 자를 돕는 것이다. '잘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 것이며, 곤고한 자를 신원할 것'이며,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 등 4대 취약계층을 도우라'고 명령한다. 넷째, 공동체와 개인들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되돌릴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창조 의 상태를 파괴하여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혹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명령한다. 이처럼 성경의 정의에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양극화와 혐오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패거리 정치를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월감을 표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 국가적인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성경적 정의의 실천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항상 흐르도록.

묵상: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할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인본주의 우상에 대한 고찰 4

크리스천이 지지해야 할 이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할 때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신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자신들의 어린 아이 같은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들의 뜻대로 국민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것만이 실제 목표가 아닌지,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떻게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선동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인본주의적 공산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만큼 위험한 이념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극좌의 대척점에 있는 극우적 성향도 거의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일본의 극우적인 전쟁광들이 언제나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성인 아이들이라면, 공산주의의 서진(西進)을 염려하고 이를 미끼로 국민들을 지나친 반동으로 선동했던 독일의 나치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어떤

이념을 지지해야 할까? 그 답은 오직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며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본주의적 주장들은 모두 오류이며 그 결과들은 참혹할 뿐이다. 이것은 극좌나 극우나 마찬가지이다. 인간 교만의 소리가 커지면 항상 불행은 향해 치달는다. 세상의 이념에 본능적으로 따르기 전에 그들의 주장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인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이 땅에 넘치는 악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해법으로는 결코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만 진정한 해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숫자가 늘어난다면 사회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 성숙한 국민과 성숙한 정치가로 구성된 사회라면 사회주의적 주장이나 자본주의적 주장에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일부 담겨있음을 알게 된다. 동시에 어느 한쪽도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는 아직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국민된 책임은 선거 때 선택을 최대한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어느 정치가도 우리에게 낙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회주의적 정당과 자본주의적 정당이 서로 경합하게 하여 때에 따라 적절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게끔 해야 한다. 장기 집권은 어느 집단이건 타락하게끔 되어 있다.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정치가들은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가치들을 제시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자. 그리고 그들의 말에 진심이 담겨있는지 잘 분별하자. 만약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모두 오류인 것을 알면서도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이라면 실제적으로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악한 정치가임을 깨닫자. 반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념이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어린 아이 같은 정치가들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할 때 수시로 작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사 3:4-5).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영적인 눈을 바로 펴서 이 땅에 이런 사회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성인 아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정대서 장로
(푸른누리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다

마태복음 13:1~9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흙의 영양분을 다 가져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둘러싸고 있는 슬픈 소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한 채 생명의 가능성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슬픈 소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 있는 많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호기심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몰려오니 군중심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릇된 마음의 상태가 슬픈 소식입니다.

또 한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릇된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자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토양의 종류는 네 종류의 결정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로 태어나서 길가로 살다가 길가 같은 인생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태어나 돌밭으로 살다가 돌밭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태어나 가시덤불로 살다가 가시덤불로 죽는다는 결정된 운명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쪽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돌들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도 있어서 일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비유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토양의 상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한 종류의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된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별하고, 열매 맺는 마음으로 토양이 변화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야 합니다.

길가, 반향적인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반향적인 마음의 토양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단단한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거부합니다. 반향합니다. 대적합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죄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토양이 단단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한 번도 격려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늘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마음의 토양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마음의 토양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향, 대적,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거리처럼 인생의 성공을 거듭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겨서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많은 성공을 거듭하면서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단단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는 반향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마음 상태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금방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토양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토양으로 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반향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을 등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대화해야 할 부부가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대적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하나 됨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인간이 말씀에 무감각해진다면 그 자체가 대적의 상태입니다. 반향의 마음입니다.

돌밭, 피상적인 마음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피상적인 마음의 토양입니다. 유대 지역의 밭들은 겉은 흙이지만 바로 밑에 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실제로 평야가 매우 일부입니다. 돌밭에 있는 흙은 씨앗을 빨리 받아들이어서 먼저 싹을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온돌효과를 내서 싹이 먼저 난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농부들은 싹이 빨리 나는 것은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듣기는 잘 듣고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되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깊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같은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우상이 있고, 미신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크리스천이고 내면은 돌에 막혀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의심 없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

세계관이란 창자 속에 내려가 있는 믿음”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안경을 쓰면 렌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색인지, 눈과 일치되어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보게 됩니다. 노란색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에 큰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수많은 돌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위에 유물론, 회의론, 진화론 등 수많은 사상이 돌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큰 돌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사상입니다. 흔히 ‘포스트모던주의’라고 말하는데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DNA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남자와 여자밖에 없느냐, 왜 그런 성의 구분을 부여받아야 하느냐, 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어느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기를 남자로 느끼는지 여자로 느끼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학생은 분명히 남자인데 자신을 여자로 느끼는지 남자로 느끼는지를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들이 혼동하게 합니다. 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상에 박혀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인 권위의 진리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엄청난 돌들이 인간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이의 마음에 돌들을 하나씩 박아 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헛된 의식의 돌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제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14면에 계속〉

또 하나의 가족 ‘교회’

미혼모에게는 **맘앤맘스**가 새 힘입니다!

엄혜정 자매가 만난 세상 둘도 없는 조력자

발랄하고 경쾌했다. 어쩌면 껄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덩덤하고 솔직했다. 미혼모 엄혜정 자매(32세)와 대화하면서 든 느낌이다. 미혼모가 된 사연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주저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엄혜정 자매는 아버지의 학대, 남자친구의 이기심과 무개념, 외로움과 절망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자립했다. 그녀가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숨은 조력자 덕분이다. 그 숨은 조력자가 바로 온누리교회 맘앤맘스(미혼모지원사업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엄혜정 자매와 딸 혜울이가 활짝 웃고 있다.

엄혜정 자매는 9살 난 딸(엄혜울)과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어엿한 직장도 생겼다. 새내기 간호조무사로서 병원 일에 적응하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오전 내내 실수만 왕창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녀에게서 진짜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도감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혜정 자매는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다. 보육원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삶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아동학대를 당했거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유독 그녀만 학대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을 수십 번도 더했다. 하지만 하나 있는 남동생이 마음에 걸렸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동생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동생에게서 엄마에 이어 아버지까지 빼앗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녀 혼자 인천에 있는 보육원에 들어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당이었다. 전국을 전전하며 살다가 제주도에 자리를 잡았다.

보육원 생활은 괜찮았다. 아무런, 때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행

복한 시기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보호막인 보육원을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보호종료아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있는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 외로웠다. 친구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다.

23살, 그렇게 미혼모가 되었다

“친구를 사귀어볼까 싶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아이 아빠를 만났어요. 이야기 나눠보니깐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 같았다. 1년 정도 만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인 사이가 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특히 성적인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배려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어리고, 외롭고, 잘 몰라서 남자친구에게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하도 조르고 들이대서 성관계를 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댔다. 그 남자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였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와 사이도 좋지 않아서 인천으로 도망치듯 와버렸어요.”

인천에 있는 친구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5개월이었다. 엄혜정 자매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와 남자친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녀 나이 23살이었다. 그렇게 미혼모가 되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나 싶었다. 그 질문에 그녀가 막장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실 아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SNS를 보고 아기 사진이 있으니깐 이상했는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 아이가 내 아이 인지 어떻게 보장하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랑 아이가 흑시라도 자기 발목을 잡을까 봐 미리 욕박지르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날 이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혼자 아이 키우려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버리려고 제주도에 온다고 의심하더라고요. 제주도에 내려간 날부터 ‘사실대로 불러라’고 소리치며 때리더라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워 찾아가는데 또 한 번 좌절했다. 아니라고 애원해도 전혀 듣지 않았다. 한 달 반 동안이나 맞았다. 얼마나 맞았는지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걸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어디에도 없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집을 탈출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간 곳이 집 근처 개척교회다. 그 교회의 도움으로 병원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 등에 연결되었다. 치료받고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엄마, (맘앤맘스)집사님 만나러 가?”

온누리교회 맘앤맘스와 연결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녀에게 도움을 주던 시설에서 온누리교회 맘앤맘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주선

해줬다.

“예전에 미혼모 시설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맘앤맘스 봉사자들이 오셔서 봉사하는 걸 봤어요. 맘앤맘스와 연결된 미혼모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남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맘앤맘스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거든요. 저한테까지 기회가 닿지 않아 적잖이 실망했었는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믿기지 않았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냥 좋았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꿈이 뭐냐고 물어봐줘서 고맙웠다. 사심 없이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맘앤맘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맘앤맘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녀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졌다. 오죽했으면 딸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맘앤맘스)집사님 만나러 가?”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수많은 배 속 아기들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낙태가 어른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조심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즐기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그 책임은 오롯이 아이가 지고 있잖아요? 어른이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맘앤맘스 집사님, 권사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혼모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미혼모들은 자격지심이 많아서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책감과 죄악감,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득한 사람들이예요. 미혼모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와 지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와 맘앤맘스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받은 사랑 돌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의: 사회선교부 맘앤맘스
02-3215-3434, 3436

언택트 시대 新신앙생활

“내 방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아주 특별한 이유

언택트 시대 새로운 신앙생활이 담겨 있었다. 말씀과 기도로 청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백신도 투여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이 아주 특별한 이유다. J4U청년부는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을 초대했다. 청년들이 온라인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했다. 은혜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내 방에서 참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들 그랬겠지만 J4U청년부 청년들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큰 위기를 겪었다. 아니 겪고 있다. 영상예배와 온라인 순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갑자기 바뀐 언택트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준인 목사(J4U청년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매주 청년 300명 정도가 함께 순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온라인 순예배로 전환했더니 참여율이 급감했습니다. 순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영상예배와 온라인 순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구해주세요’, ‘꼭 좀 잡아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도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열매가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입니다.”

특명,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여라!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신앙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온라인 강의와 예배를 송출하는 것은 너무 흔하고, 뻔했다. 그렇게 해서는 청년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온라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J4U청년부 청년들이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에서 예배를 회복했다.

먼저 홍보부터 이색적으로 했다. ‘더카’라는 수련회 홍보콘텐츠를 만들었다. 더카는 온라인 수련회 1, 2호 신청자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이준인 목사가 온라인 수련회에 대한 기대 등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다.

‘수련회 키트’도 만들었다. 수련회 키트에는 수련회 단체인, 십자가 조명, 간식, 성찬용품 등이 들어있었다. 온라인 수련회 일정에 맞춰 청년들의 집으로 배송해줬다. 청년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수련회 콘텐츠’에도 신경을 썼다. 화상 콘텐츠와 한 방향 콘텐츠를 골고루 구성했

다. 화상 소통이 필요한 저녁집회는 줌(Zoom)으로, 홀리스타, 보이는 라디오, 영화 등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다.

편리함과 소통은 기본, 성찬과 안수기도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수련회 일정과 서비스를 J4U청년부 홈페이지(www.j4u.online.church)를 만들어서 제공했다. J4U청년부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수련회 일정, 은혜나눔게시판, 유튜브 채널과 줌(Zoom)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배너도 있었다. 온라인 수련회 일정마

다 참가자들에게 링크를 전송하지 않아도 J4U청년부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과 원활한 소통과 나눔을 위해서 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은혜나눔게시판도 만들었다. 온라인 수련회 둘째 날에는 이준인 목사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먹방(음식을 맛있게 재미있게 먹는 콘텐츠)’을 하면서 청년들과 소통했다.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성찬식과 안수기도(일대일 기도)’가 진행된 둘째날 저녁집회였다. 성찬식에는 온라인 수련회 전에 청년들의 집으로 배송한 수련회 키트에 들어있는 성찬용품을 가지고 참가했다.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이보다 큰 은혜가 없었다. 기도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교역자와 멘토들이 안수기도도 해줬다. 줌(Zo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했다.

특히 둘째 날 저녁집회가 뜨거운 은혜 속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이 진행되는 줌(Zoom)을 나가는 청년들이 없었다.

처음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준인 목사와 멘토, J4U청년부 리더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고생도 참 많이 했다. 그러나 “내 방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노고와 헌신과 희생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

참가자 간증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2017년 말 새가족 교육을 마쳤다. 그런데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교회와 슬금슬금 멀어졌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교회와 신앙과 이별했었다. 그런 내가 얼마 전 부활절에 문득 교회 뜰을 밟고 싶었다. 주일예배를 예약하려는데 만석이라 열떨결에 J4U청년부 예배를 예약했다. 그 예배에서 온라인 수련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들었다. 나를 위한 온라인 수련회 같았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같았다. 눈 딱 감고 신청했다. 기도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련

회 키트가 집에 도착했다. 티셔츠와 기도수첩, 간식까지 들어 있었다. 엄청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련회 키트를 받고 무척 신이 났다.

온라인 수련회 첫날 집회에서 “예배가 멈추었다면 그건 내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주님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 남미영 성도

바로 그 경험!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에 참가하면서 누구보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성격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를 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면 내가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경험을 나와 똑같은 어려운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경험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THE ROOM’에서 <WAR ROOM>라는 영화를 보면서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정정윤 순장

생명 경시 풍조를 바꿈시다 4.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해진다!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해진다!

최근 10년 국내 유기동물 94만 마리, 동물학대 1,147% 증가
동물보호는 생명 존중의 첫걸음이자 청지기의 또 다른 사명

지난해 국내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38만 가구로 전년대비 47만 가구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2019년에는 무려 13만5,791마리가 버려졌다. 동물학대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무려 1,147%까지 증가했다. 동물을 향하는 폭력은 결코 동물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동물학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청지기 사명을 부여하셨다. 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생명 존중의 첫걸음이자 청지기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또 다른 사명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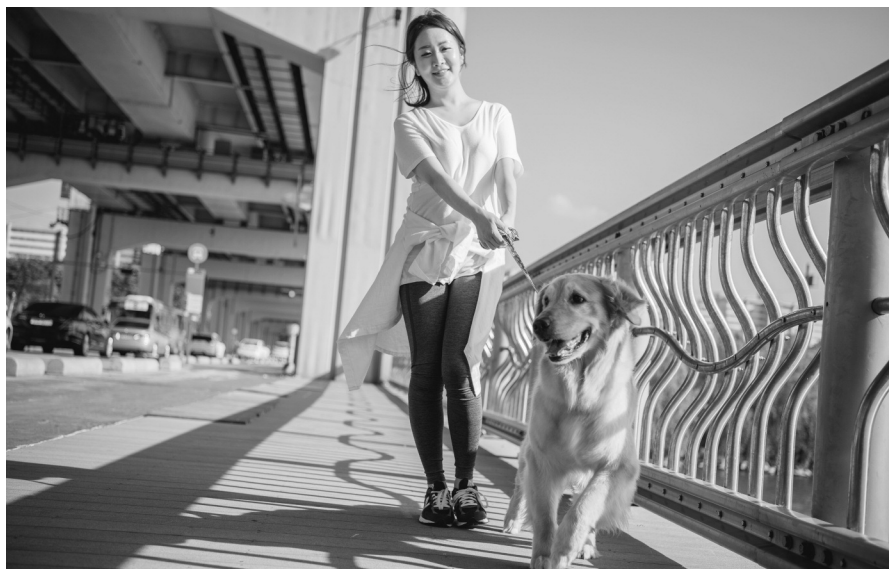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 재임을 의미한다. 과거 인간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뜻으로 쓰이던 ‘애완동물(愛玩動物, Pet)’과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단어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반려(伴侶)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말이다. 동물은 더이상 인간의 유희 거리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5년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꾸준히 늘던 반려인구가 지난해 1,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다.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많이 키우는 만큼 많이 버려지고 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했더니, 2010년부터 10년 동안 버려진 동물이 94만7,098마리나 된다. 2017년부터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가 버려졌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을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247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동물학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1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 1,000% 이상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발표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1,147%까지 증가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는 914건까지 폭등했다.

날이 갈수록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잔혹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 토막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고양이 사체 발견 당시 머리, 각각의 앞발, 하복부와 뒷다리 등 총 네 토막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코와 입이 잘리고 케이블 타이가 살을 파고든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유기견 한 마리가



가 발견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판 N번방’ 사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개나 고양이, 너구리 등 동물을 업종으로 잔혹하게 학대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채팅방에 유포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

동물학대 인간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동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생명경시 현상은 결국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라고 지적한다. 보스턴 노스이스트대학 및 동물구조단체 MSPCA가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 동안 고발당한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동물학대범 중에서 45% 살인, 36% 가정폭력, 30%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동물학대범이 사람을 폭행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5배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도 비슷한 연구 사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권일용 교수(프로파일러)가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범자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공통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라 불리는 여중생 살인범 이영학은 “딸 앞에서 키우던 개 6마리를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폭력성이 극에 달하면 인간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말이 달라질 수 있다. 동물학대가 또 다른 생명 경시 현상을 만들어낸다면, 동물보호는 생명 존중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연약한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과 동물이 동행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해진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 초등학교 3곳과 특수학교 1곳에서 어린이들이 강아지를 돌보는 ‘학교명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이전보다 인성 13.4%, 사회성 14.5%, 자아존중감 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인 공격성은 21.5%, 긴장 수준은 17.3% 낮아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전국 20세 이상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동물교감치유’에 관

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65.3%가 “동물 교감 치유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심리정서적 안정감’, ‘우울, 스트레스 감소’, ‘삶의 활력’ 등을 꼽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은 노인이나 심혈관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년 생존율이 5배 높았다. 특히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반려동물이 ‘육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보고 됐다.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동산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하나님은 동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잠 27:23).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을 돌보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동물을 보살피는 일이 의의 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잠 12:10).

동물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과 동물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동산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창 2:19), 에덴동산을 지키는 것(창 2:15)이 아담이 맡은 일이었다. 이제 다시 이 땅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슈(issue) '가스라이팅'

사랑처럼 보이는 속임수!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배시은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슈퍼바이저)

최근 '가스라이팅'에 관한 연예계 이슈가 뜨겁다. A라는 연예인과 B연예인이 사귀었는데, B가 연인 A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B는 연기해야 하는 드라마에

서 연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함으로써 상대 배우 및 작품에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C연예인의 이야기다. C는 자신의 형제와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 벌어들인 자산을 팔겠다. C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C가 계속 돈을 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C의 거의 모든 재산이 형제에게로 빼돌려졌다고 한다.

이 사건들의 진위는 나도, 독자들도 모두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사랑하는 사람 간에 누군가를 착취하고 확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행위가 사랑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한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이며,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성경에 나타난 가스라이팅 사건이 있는지,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

가스라이팅 심리적 조작,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심리학 용어이다. 심리적 조작(Psychological manipulation)으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켜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든 다음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영국에서 공연된 '가스라이트(Gas Light)'라는 연극에 등장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유래한다. 극중에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든다.

가스라이팅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권력과 통제를 통해 부모 자녀, 부부, 연인,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 생각, 기억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거부하며 피해자 스스로 감정, 생각, 기억 등을 믿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간다.

상담장면에서 주로 보고되는 가스라이팅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

다. 외부로부터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조종과 통제를 한다. 가해하는 가족 구성원은 자신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할 때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아빠, 가족)를 위해 이 정도도 못 참니?",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라는 말들로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한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거나 후회하고, 부모에게 숨기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간단한 결정조차 하기 힘들게 된다. 부모가

신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 결국 리브가의 조종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아담은 에서에게 쫓겨 삼촌 라반에게 도망간다. 아담은 라반에게도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던 말에 속아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7년을 더 일하게 된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 역시 아담을 오랜 시간 일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조종했다.

삼손과 들릴라(삿 16장)도 가스라이팅의 한 사례이다.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큰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들릴라는 지속적으로 삼손을 재촉하고 꾀어 결국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고 죽게 한다.

가스라이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로빈 스텐(Robin Stern)은 가스라이팅 현상(The Gas

lighting Effect)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터와 교류를 끊는 것이다. 각자의 삶에서 회복과 성장을 통해 성숙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가스라이터는 과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스라이팅되거나 상처를 받았던 약자로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스라이터는 스캇 펙 박사의 처방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장에서 마주하게 될 고통이 인격을 성숙시킨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며 그리스도가 이끄는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원동력이다.

가스라이터는 가스라이터와 같은 타인에게 받을 인정과 공감을 포기하기를 권고한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공감력이 있어서 친절하고 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하고 정당하다. 하지만 그 욕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채우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내어 맡긴다면 언제든지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상황에 있다고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상대와 이야기하고 나면 수치스럽고 두려운가?',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는가?', '도대체 상대방의 의도가 뭐지?' 등이다.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여겨지면 가스라이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을 제물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가스라이터에게 착취와 학대를 허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내 감정을 안다고? 나는 그런 감정 느낀 적 없는데?", "내 생각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해", "잠깐만. 대화를 멈추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라이팅은 사랑처럼 보이는 속임수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이다.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나와 타인에게 있음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주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으로 인해 만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로가 기쁨을 누리게 한다.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진실한 사랑의 경험은 부족함을 성장시킬 용기를 주고, 마음속 상처를 회복시키며, 성장으로 이끈다. 그 사랑이 타인에게 흘러가서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진실한 사랑의 경험으로 용기를 갖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를 사랑해주는데 왜 나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성경에도 가스라이팅 사건이 나온다. 최초의 가스라이팅은 뱀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 사건이다(창 3장).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조종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든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묻는 하나님께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의 원죄 이후 성경에는 크고 작은 가스라이팅이 등장한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오빠 라반이 아담에게 행한 속임수도 가스라이팅이다(창 27-28장). 성경에서 아담은 에서를 속인 인물로 소개되는데, 아담의 행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조종되어 보인 결과이다. 이후 아담도 라반을 속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리브가는 에서에게 갖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담에게 받으라고 권한다. 아담은 "자신은 에서와 같이 될 이 있지 않아서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하지만, 리브가는 자

lighting Effect)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Gaslighter)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Gaslightee)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가스라이터는 자아와 자존감을 지킬 권리가 필요한 자이고,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터를 동경하고 그에게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현실감을 지배당하는 자로 설명한다. 나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통제와 조종을 하려는 가스라이터는 주로 자기중심적이거나 공격적 성격장애를 지녔다.

스캇 펙(Scott Peck) 박사는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러한 성격장애에 대해 '악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 과정에서 겪을 고통을 맞이할 적극적 마음이 없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은폐하고 위장하며 합리화와 공격하려는 자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태만으로 인해 악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했다. 결국 자신의 마음에 악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된다. 가스라이팅의 입장을 보면 선악의 분별이 떨어진 상태, 어리거나 미숙해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온라인 순예배 다섯 가지 노하우

“저는 대학청년부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순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아직도 어색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순예배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순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온라인 순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평소 화상으로 회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낯선 환경이 더욱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직접 만나서 순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라도 순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순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좋겠다. 순장들에게 온라인 순예배 노하우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온라인 순예배와 대면 순예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장소와 방법만 다를 뿐이다. 나누는 내용은 똑같다. 따라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순장들이 온라인 순예배를 어떻게 하면 대면 순예배와 차별화할지를 고민한다. 그

고민이 오히려 온라인 순예배를 어색하게 할 수 있다. 순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본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어색한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자연스러운 순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로 순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방안이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방법을 지나치게 고민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순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순예배는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순장과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 진심을 나눈다.

둘째, 시간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 온라인 순예배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순예배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순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순원들과 혹은 공동체에서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순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엇보다 순장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순장의 일정에 맞춰 순예배 시간을 정하면 모두가 순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정 먼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

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는 핑계로 순예배 시간이 오락가락한다면 참여할 의지가 없는 순예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처음부터 순예배 시간을 정하고 모두 그 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맞추는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학청년부의 특성상 주중보다 주일에 순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셋째, 감사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순예배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순예배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만 나눈다면 그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더욱 우울한 순예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순예배를 드리면서 꼭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기를 바란다.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순예배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새 힘을 얻는 순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다음 순예배가 기다려질 것이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순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넷째, 교역자나 멘토님을 초청하면 새로운 순예배를 드릴 수 있다. 순장들은 교역자나 멘

토님을 만날 기회가 많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순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보기를 추천한다. 유튜브나 CGNTV 기독교 OTT ‘풍당’에서 영상을 찾아 순원들과 공유하면 보다 효과적인 순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중에 추천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순예배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단들이 영상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영상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다. 온라인으로 순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은 힘들지만, 온라인으로도 순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순장으로 훈련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예배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성장시키실 것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순장들 화이팅!



최성민 목사
(허브대학부 담당,
대학부 총괄)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충분한 나눔 그리고 합의

“결혼한 지 4년 차 부부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는데 남편이 자주 미룹니다. 저와 남편 둘 다 30대 후반이라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는데 남편은 지금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아이나 조카들을 엄청 예뻐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도 걱정되고, 나이가 많다 보니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할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하면서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과거 결혼한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관점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결혼 전에 자녀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출산은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볍게 넘기거나 합의 없이 결혼하기 어렵다. 자녀를 갖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부부가 추구하는 가정관은 무엇이며, 행복에 관한 관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나누야 한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

을 때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결혼 전 했던 부부의 합의가 바뀔 수 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결혼 전 합의했던 계획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때 순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히 출산 문제에 있어서 부부의 생각이 다르다면 매우 큰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사연 속 남편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헌신, 책임, 의무감 등을 크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양육의 경제적 측면’이다. 자녀를 양육할 때 지출하는 육아비용, 교육비용 등을 수치로 확인한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 더하여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욱 출산 문제를 결정하기 어렵다.

아내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30대 후반임에도 자녀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 남편은 아이들을 예뻐하지만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는 먼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충분히 공감해주는 대화를 하면 좋겠다. 아내는 남편의 부담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공감해주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공감해주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나눔과 합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출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부부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핵심적인 신념을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핵심적 신념은 주로 불안과 염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라는 신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 등 자신이 가진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정적 신념을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느낌과 감정까지도 충분히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만일 자발적 무자녀 부부로 살아가고자 했던 동기가 마음 깊이 있었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때문이었다면, 부정적인 신념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보는 것이 좋다. 약간의 양보와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볼 수 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와 마음을 충분히 수용하고 모험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부부

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한다. 그때마다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면 좋겠지만 견해의 차를 조율해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로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배우자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따라가 보는 것도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유익한 방법이기에도 충분히 대화로 조율해가길 바란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가지고 있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입장을 더 깊고 충분히 나눠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성경적 입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부에게 적용해야 할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만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성경적 가치도 충분히 나누어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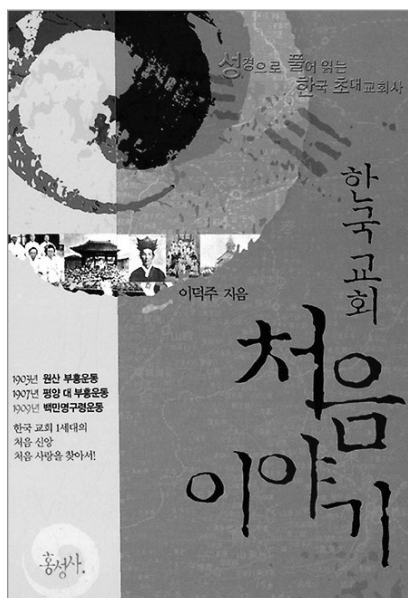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믿음과 신앙의 시작점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덕주 저 | 홍성사 | 10,800원

사람에게는 누구나 처음, 시작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다. 일일 드라마의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다.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런 주제의 드라마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열광하는 이유

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도 처음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 역사에도 처음이 있다. 이번 학기 대학청년부에서는 ‘우리 동네 성지순례’라는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 땅에서 어떻게 복음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강의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강사님께서 직접 쓴 책을 소개받았다. 오늘 소개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다.

이 책은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로 시작된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엿볼 수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으로 변화된 조선인들의 이야기도 이 책에 담겨 있다. 복음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께

서 변화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00년 초기의 부흥운동 이야기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선교는 곧 애국이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위해 삶을 던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한반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다.

이 책은 딱딱할 수 있는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다가가기 어려운 역사를 친숙하고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아울러 이 책은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점을 깨닫게 만든다. 책 곳곳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와 초기 한국 기독교의 태동의 역사를 아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

화이다”(E.H Carr)라는 말처럼, 그때 일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뿌리이자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믿음의 뿌리, 신앙의 근원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할 믿음의 길을 살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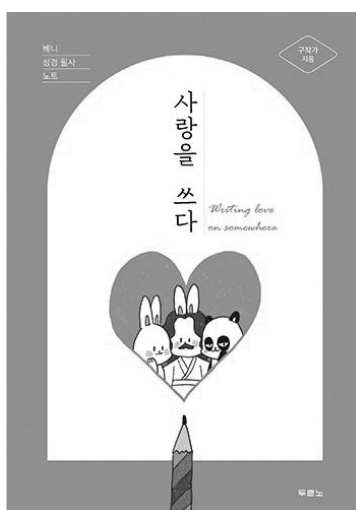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 해결책을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선배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쁨으로 만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우리를 믿음과 신앙의 요람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정한효 목사
(Pole2 대학부)

가정의 달 추천 도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사랑을 쓰다〉
구경선 저 | 두란노 | 9,000원

로 성경을 필사한다. 책 한쪽에는 성경 말씀과 다른 한쪽에는 필사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거나 나만의 말씀 카드도 만들 수 있다.

저자는 〈사랑을 쓰다〉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쓰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권면했다.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읽겠다는 다짐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겠다는 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을 쓰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울타리를 넘어 주변까지 흘러가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안정적인 소득도, 넓은 집도 아니다. 바로 사랑이다. 가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사랑을 쓰다〉는 사랑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쓰고, 묵상하는 책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사랑을 쓰다〉는 ‘사랑에 말씀을 더하다’(장 1~2), ‘사랑에 기쁨을 더하다’(마 1~2), ‘사랑에 하나됨을 더하다’(엡 4~6), ‘사랑에 친밀을 더하다’(요 1, 2, 3), ‘사랑에 사랑을 더하다’(고전 13)를 주제

가정의 달 추천 영화 ‘언플랜드’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소중함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8년 동안 무려 2만 2천 건의 낙태를 상담했다. 어느 날 애비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낙태 수술에 참관한 것이다. 애비는 낙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낙태는 산업에 불과했다. 그렇게 낙태를 상담하던 애비가 생명을 지키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자녀들과 이 영화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 15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시청 지도를 해야 한다. 〈성 사랑 가정〉(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두란노) 등의 책을 참고하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부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 영화보다 좋은 생명 존중, 성교육을 위한 자료가 또 있을까? 낙태 찬성자들까지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를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시청한다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의 낙태 클리닉 상담사 ‘애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애비는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들을 상담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빛의 나라’

오월이 피어나는 날

바람은 구름을 견고

맑게 열린 하늘 아래

초록의 파도가 눈부시다

운기 나는 잎새 위에 뿌려지는

무수한 광자들의 무도에 실려

세상 먼지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경이로운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 피어나는 삶의 나라지

어둠에 묻히지 않는 빛의 나라지

보여주는 모두는 계시의 창이지

코로나19, '지구촌'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본나바 마을

서아프리카 관문인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을 달려가면 북대서양과 접해있는 본나바 마을이 나온다. NGO 더멋진세상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힘들었던 본나바 마을을 8년 동안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품고 있다. 나는 지난해 1월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 도착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주민들을 만나러 NGO 더멋진세상 조끼를 입고 문밖을 나섰다. 모래와 조개들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든 땅과 벗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민들이 보였다. 곳곳에 땅을 파고 고인 물을 하루에 3-4번씩 퍼 올려 마른 땅에 물을 대는 주민들의 처절한 삶을 목격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낮설지만 용기 내어 다가갔다. 주민들은 처음 만난 나를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갑게 맞아줬다. 내가 벌써 이곳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주민들은 내가 입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 조끼를 보고 다가왔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려고 하면 주민들이 하고픈 말이 더 있는 듯이 급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눈시를 불허하며 NGO 더멋진세상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와 많은 것을 바꿔 놔다고 고백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을 사람들이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



세네갈 본나바 마을 교육생들이 딸기 수정 하우스에서 농업교육을 받고 있다.

가고 있다고 했다.

본나바 마을 주민들의 삶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느낀 산모가 시내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때로 아기와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많았다고 했다. 또한 모래를 파서 구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다 보니 수인성 질병에 걸려 온갖 고통을 겪었다며 그 힘들었던 기억을 토해냈

다. 그러나 이제는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마을에 보건지소가 생기고, 정수기까지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 했다.

나는 한 달 넘게 본나바 마을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내가 한 일은 고작 그것뿐인데 나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주민들과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농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본나바 마을 주민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넓은 걸음을 떼고 있다. 세네갈의 고소득 작물인 딸기 수경재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딸기 수경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가 완공됐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출국 당일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한 기술자는 본나바 마을을 떠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현지 청년들은 그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다. 정말 많이 배웠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놀랍고 귀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본나바 마을에서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주민들에게 비취줄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

8년 동안 아니 이전부터 준비하셔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품으시고 만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박승훈 선교사(KOICA 농업사업 PM)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늘대학부 가스펠 프로젝트

지난해 하반기 바이블아카데미 강의 중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수업을 들었다. 사실 내가 듣고 싶어서, 자원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었다. 동역자의 권유로 신청했다. 동역자가 나에게 가스펠 프로젝트를 권유하면서 아무런 나눔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편하게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꾀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터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조금 망설여졌다.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신청했는데, 아뵐까.

강의 첫째 주부터 조별 나눔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내가 조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13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스펠 프로젝트 수업을 들은 것은 강의와 나눔에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스펠 프로젝트 수업을 들으면서 13가지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배웠다. 평소 설교에서는 자세하게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 순히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라”는 예수님의 사랑 어린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수빈 자매(하늘대학부)와 조원들이 조별 나눔을 하고 있다.

또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이 나음을 공표하신 것은 부끄러움 많은 그 여인을 대신해서 모든 이에게 선포하심과 ‘혹시 내가 정말 나았나?’라는 일말의 의심조차도 없애주기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알 수도, 깨닫지도 못했을 내용이었다.

솔직히 졸업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의 사례들이 나에게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진정 믿어야 하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공감하고 슬퍼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이자 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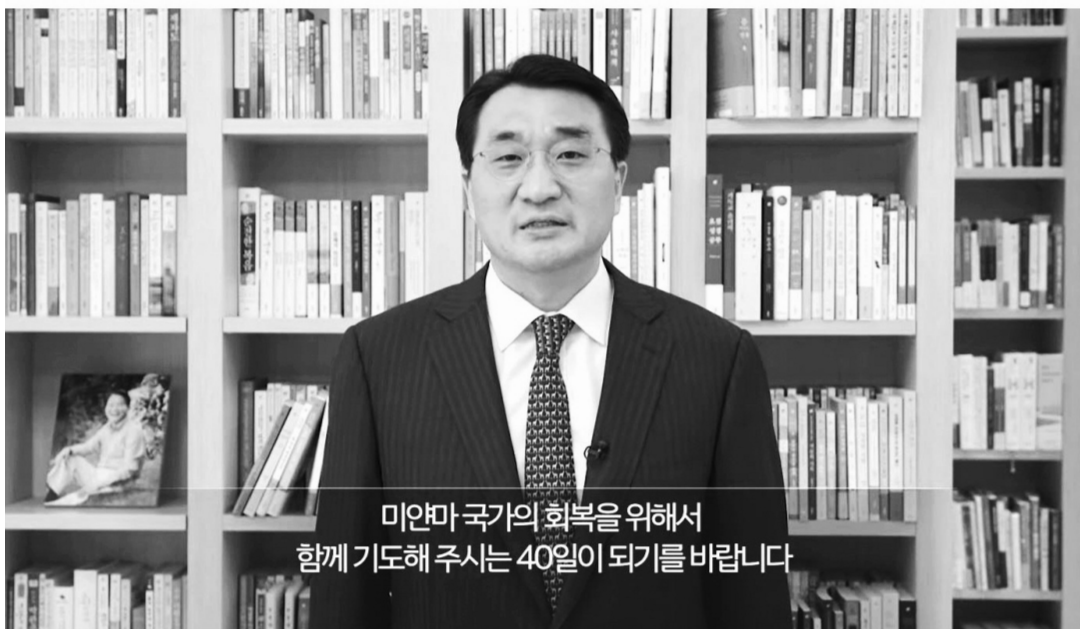
13주 동안 함께 한 우리 조원들을 잊을 수 없다.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주어진 질문을 생각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나를 말씀에 적용해볼 수 있었다. 조원들이 나눠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나눔은 서로의 힘들음을 위로하고 토닥여주는 시간이었다.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온라인의 한계와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풍성한 나눔이었다.

나눔을 이번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누자고 약속했을 때 정말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이블아카데미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면서 코로나19로 힘들기만 했던 시간을 은혜와 감사를 만끽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듣자고 나를 꾀었던 동역자에게, 이 모든 과정에서 깊은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윤수빈 자매(하늘대학부)

나눔, 정말 큰 위로이자 선물



미얀마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기도회

매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기도편지 업로드

온누리교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Pray for Myanmar' (이하 미얀마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기도편지가 업로드 되고 있다. 벌써 누적 조회수가 4만 2천(4월 28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채널에 매일 업로드 되는 기도편지를 읽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 기도편지는 미얀마에 거주하는 선교사, 성도나 선교기관 리더십들이 작성하고 있다.

A자매는 "생수를 배달하다,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가다 이유 없이 총을 맞고 폭행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괴롭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했다. K선교사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 미얀마 전역에 걸쳐 차단될 수 있다"면서 "미얀

마 땅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악의 사태인 내전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해주셔서 미얀마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온누리교회는 25년 전부터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2명의 선교사와 4명의 현지인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문고

어린이주일 할인 이벤트

서빙고점, 어린이날 선물
추천 코너 10% 할인

두란노문고 서빙고점에서 어린이주일을 맞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어린이날 선물 추천 코너에 있는 모든 도서, 음반, 문구의 가격을 10% 할인해준다.

전화(02-796-2310), 문자 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두란노문고 서빙고점 온라인 북스토어에서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주일설교 추천 도서, 공동체 묵화자 추천 도서, 순장학교 필독서, 두란노 가정의 달 추천 도서, <생명의 삶>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문의: 02-796-2310

다음세대를 예배자로!

수원 차세대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

지난 4월 24일(토)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본당에서 차세대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Re:Alive)'가 막 올랐다. 청소년 57명, 부모 48명, 청년 28명 총 133명이 참가했다.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Re:Alive)'는 His청년부 찬양팀의 찬양, 남훈우 형제(위십하우스 보컬)의 간증, 김소리 목사(온누리교회 수원캠퍼스 담당)의 설교, 기도회,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소리牧사는 '어노인팅'

(단 1:8)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다니엘 같은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리:얼라이브 집회는 수원 파워웨이브와 His청년부가 연합해서 다음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기획된 예배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

과테말라 허리케인 피해 157가구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허리케인 '에타'로 큰 피해를 입은 과테말라 엘미라도르 마을 등 3개 마을 157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가구당 5명이 1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지원했다. 이번 긴급구호는 지난해 과테말라를 강타한 허리케인 에타와 코로나19 피해가 겹쳐지면서 기

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높은뜻우리교회와 협력했다.

과테말라 현지 신문에서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3개 마을이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김영선 기자

가정의 달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 모집

5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후 1시 온라인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5만 원(교재비 포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선택과목으로 2학점을 부여한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부부 회복 프로그램이다.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성경적 가정원리를 따라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다. '길을 떠나는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Finding Self', '배우자 바로 알기', '부부관계 개선'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 가정을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어 나눔을 하고, 부부코치의 코칭도 받는다. 문의: 010-9041-5538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5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10-2539-5665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5월 29일, 청소년반 6월 12일부터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청소년반과 부모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반은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모반은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건강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 신청은 5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면접을 보고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회비는 10만 원(부부 2인 신청하면 15만 원). 문의: 02-3215-3532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5기 참가자 모집

5월 17일부터 매주 월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7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나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물품 포함).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족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을 양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성령수련회 78기 참가자 모집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웹엑스'

성령수련회 78기 참가자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령수련회 78기는 5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온라인 '웹엑스'로 진행된다.

성령수련회는 성경 전반에 나타

나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속성, 사역, 권능, 우리를 향한 뜻에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스쿨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문의: 02-3215-3533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김남영 순장(서대문공동체)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세상적인 것이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에 밀려 있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윤이 나의 목표였다.

아내는 달랐다. 늘 교회가 우선순위였다. 아내에게는 공동체 식구들이 늘 먼저였다. 아내를 늘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로 순장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힘들 법도 한데 2년 동안 묵묵하게 순장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아내를 보며 감탄했다.

주변의 권유로 순장학교 훈련을 받게 됐다. 열정적으로 순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과연 내가 아내만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아내의 어깨너머로 순장의 역할과 사명 등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피염피염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순장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장학교 훈련에 열심히 임했다.

순장학교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달라졌다. 먼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조직은 항상 충돌한다는 문제도 직면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순장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장의 균형과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됐다. 순이라는 한 조직,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순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다. 순장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순장이 어떤 자세로 순원들을 만나고 섬겨야 하는지도 깊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순장은 여러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실함과 헌신, 순종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순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훈련받고 있다. 어느 것 하나만 잘한다고 순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 성품, 신앙생활 등 모든 부분을 잘 해내야 한다. 순장이 만능이 되어 순원들을 살리고, 칭찬하며,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임을 고백한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순장이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매일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순원들을 품고 양육하는 순장이 되고 싶다.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 임희정 성도(서울드림교회)

하나님과 나 그리고 태극기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교회에 가게 됐다. 처음 가본 교회는 참 따뜻했다. 교회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마냥 좋았다. 집보다 넓고 깨끗한 교회 마루바닥이 최고의 놀이터였다. 늘 교회에 붙어 있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나는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두 손 안에 세계를 주세요.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매학기 등록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과 박사학위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갈 무렵 좌절을 겪었다. 내 꿈이었던 교수가 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내 모든 꿈과 소망이 함몰되는 공포를 느꼈다. 나는 매일 밤 울다 잠들었다. 그러다 프리덤스쿨을 소개받았다. 첫 주 소그룹 모임 때까지만 해도 프리덤스쿨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다. 그런데 둘째 주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를 받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특히 ‘태극기’라는 단어를 듣고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태극기에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전 세계를 누비게 해달라고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 큰 태극기를 보여주셨다. 20년이 지난 그날, 나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와 똑같은 형상의 태극기를 보여주셨다.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렇게 프리덤스쿨을 마치고, 스태프로 섬기고 있는데 교수님께 연락이 왔다. 경찰청에서 법과학분야 연구관을 특별채용한다는 소식이었다. 내 전공과는 관련 없는 일이고, 전국에서 단 한 명 뽑는 자리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합격했다. 경찰청에 첫 출근하던 날 입구에 펼쳐이던 태극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일하는 방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곳에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프리덤스쿨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선영 성도(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제자를 낳는 삶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게임과 유튜브에 빠져 지내는 것을 보고 내 한계를 느꼈다. 자녀들의 신앙과 가정문화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훈련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충민이가 곧 6학년이 될 텐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일대일제자양육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충민이에게 엄마랑 성경공부를 딱 12주만 하자고 제안했다. 흔쾌히 승낙받고 한 주 한 주 시간을 정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충민이와 나는 손꼽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시간을 기다렸다. 충민이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희미했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했다. 나 또한 충민이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자녀와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육동건 장로님이 “신앙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골든타임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삶을 원했던 것 같다. 성과를 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치부하며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으면 둘째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부러워했다. 충민이도 늘 동생과 함께 있다가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서 좋았나 보다. 매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그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친밀감과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충민이도 자녀를 낳으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제자를 낳는 삶인 것 같다.

■ 성령수련회 참가자 간증



/ 전금자 권사(일본어예배)

마음의 할례와 영적 대각성의 시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수련회 광고만 나오면 마음이 많이 설레고 간절하게 참여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제자학교(저녁반)를 섬기고 있는 시간과 성령수련회 시간이 겹쳐서 신청하지는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영상예배가 적응되어 갈 즈음 다시 성령수련회 광고를 접했다. 반갑기도 했지만 내심 영상으로 성령수련회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신청했다.

성령수련회 날짜가 다가왔다. 사전 모임을 시작으로 드디어 기다리던 성령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전 모임을 해서일까 시작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조차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한 시간이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말씀과 만나야 한다’, ‘성령님은 통로일 뿐 아니라 인격이시다’라는 질문과 내용이 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 성령수련회는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

가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시며, 동시에 ‘부리는 영’이라는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회개했다. 내가 성령님을 제한했던 이유는 성령님을 구할 때 은사 위주로 구했기 때문이었다. 인격은 능력이며, 능력은 인격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에 감사했다.

믿음은 누림의 모든 단계이자 전부이고, 마음의 할례가 되면 예수님의 성벽이 세워져서 어둠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성전과 무기가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 등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을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 온전히 알게 되어 감사했다.

성령수련회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시간이자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이었다. 요셉이 어릴 적 꿈을 끝까지 좇은 것은 그의 의지이기 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주제로 나 자신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다.

내 삶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번 성령수련회를 통해 내 마음에 깊이 심어졌다.

장로칼럼

인천 캠퍼스의 세 가지 비전



송동섭 장로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

2016년 2월 14일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가 구월동 예배처소를 나와 송도 컨벤시아에서 첫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후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지난 주일(4월 24일 ~25일)까지 270번의 주일예배를 송도에서 드렸다.

매주 주일 송도 컨벤시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대학교를 옮겨 다니며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주일이 없었다. 주일 오전 6시면 임시예배처소를 세팅하는 처치빌더스팀이 모여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가 끝나면 철수하기를 반복했다. 고되고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참여하고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으로 얼굴이 빛났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감사드린다.

나는 40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비상구에 참여했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새신자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가 창립되어 50여 명의 성도가 출석했다.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는 구월동 한 상가건물 지하2층에 있었다. 성도가 천여명을 넘어가며 환경 개선을 거듭해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회 이전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주님께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해주시길 기도하며 리더들은 인천 모든 지역을 탐방하며 예배당 장소를 찾았다. 마침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송도 신도시에 남아 있는 종교부지를 찾게 되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서경남 담임목사님은 송도 종교부지를 놓고 2013년~2014년 작

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모든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며 비전을 구하길 선포하셨다.

성도들이 먼저 새롭게 세워지며 새 예배당에 대한 비전을 구했다.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는 세 가지 비전을 얻었다.

첫째,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이다. 송도에는 6개의 종합대학이 있다.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한다. 송도는 다음세대를 섬기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

둘째, 다민족 예배를 위한 비전으로 송도는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해 많은 국제기구와 회사가 들어와 근무하는 다국적 외국인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세우고 싶다.

셋째,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다. 송도 인근에는 항만과 공항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이 나라에 초기 복음이 들어 왔던 것처럼 인천을 통해 선교사들이 왕래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 가지 비전을 담은 교회를 꿈꾸며 용지매입과 동시 구월동을 떠나 송도에서 예배를 드리며 땅 밟기를 시작했다. 지난 5년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훈련받는 시간이었다. 초기에는 자주 바뀌는 예배 장소를 놓쳐서 주말마다 예배 안내에 혼선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이 섬기며 하나 됨을 이루는 은혜가 넘쳤다.

송도에서 천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 인원이 세 배로 늘어나 더는 함께 드릴 예배공간도 찾기 어려운 지금이 되었다. 이제 올해 7월이면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어 성도들이 기쁨으로 입당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가 송도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실하게 전하게 하시며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

권사칼럼

“나누고 전하고 베풀어라”



김애련 권사
(서초B공동체)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90세가 넘으신 친정어머니와 90일 동안 성경통독을 했다. 사실 눈도 어두우시고, 귀도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끼고 계신 어머니와 성경통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귀에 말씀을 읊어주셨다. 보청기를 끼시는 분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린다고 하셨다. 과거에 필사를 하신 것이 하나하나 생각난다는 은혜를 나눠 주셨다. 어머니와 함께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성경통독을 이어갔다.

젊은 부부 공동체 성경읽기도 진행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은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Point5공동체 멘토로 오래 섬겼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보게 하셨다. 젊은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두 자매와 연결이 되어 세 부부와 함께 젊은 부부 공동체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온라인으로 미국과 레바논,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모이게 되어 함께 부부 성경통독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남편의 사업 파트너 부부들과도 공동체 성경읽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업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서로 말씀을 나누며 더욱 깊은 사이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발걸음을 선택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

오래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도 체험했다.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몇 년 전부터 강남에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의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공간과 기도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었다. 오래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90일의 기

적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또 다른 기적은 시력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6년 전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 한쪽 눈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라 운전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90일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 시력이 많이 회복되어 6년 동안 잡지 못했던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었다. 병든 몸을 치유해주시는 기적마저 체험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고 그 기적들이 뼈곡하게 적힌 나의 일기를 읽으면서 기적 같은 나날이었음을 고백하게 됐다.

나는 매일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제목을 노트에 정리한다. 15년 이상 됐다. 그러다 2018년 우연히 온누리교회 ‘예수동행일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예수동행 일기에 대해 배우고, 배운 대로 일기를 쓰면서 그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고 그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들이 뼈곡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살펴보면 기도하던 중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록들을 추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출간을 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은 올해 나에게 주신 키워드였다. 책에는 90일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 적은 일기 30편을 넣어두었다. 나의 계획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들이 담겨져 있다. 오랫동안 큐티를 하며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책 <하나님의 시간표>를 출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망이 있다. ‘말씀의 딜리버리로서 나누고, 전하고, 베풀어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기적처럼 내 삶에서 행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말씀의 딜리버리의 삶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내 생활 속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마음이나, 태도나, 언어생활이나, 행동들이 있지 않은가?”

무시(無視)한다는 것은 ‘보지 않는 것’ 혹은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만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우가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험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 된 행동임에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뻔뻔스럽게 무시했었다.

언어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경험이 더욱 많다. 의심과 불신의 말들, 걱정과 염려의 말들, 불만족과 원망의 말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언어생활들이 나의 인생 속에 너무 많았다.

이러한 언어생활과 태도와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영과 마음과 행동에 집중하고 계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죽음의 우박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집밖에 나오지 말고 들만에 가축들을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만에 두었습니다”(출 9:21).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 죽임을 당하

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결과였다.

나는 오늘 결심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내 입으로 말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겠노라고. 내 몸으로 태도와 행동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만 닮아가겠노라고. 나의 영과 마음의 눈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결코 돌리지 않겠노라고!

“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쉴 새 없이 바라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사랑의 눈길을 보내며 나와 우리를 사랑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만을 닮아가게 하소서.”

무시(無視)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다

스스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 권위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붙잡고 모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그것만은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그 명제대로라면 그것도 상대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짓입니다.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유로 포장하든, 인권으로 표현하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큰 돌들이 마음의 토양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씁니다. 심지어 ‘귀어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책으로 바꿔 버립니다. 성경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목적과 주장을 합리화하도록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러한 마음의 토양에 있는 돌들을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겔 36:26).

가시덤불, 이중적인 마음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가시덤불에 덮여있는 땅입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는 흙의 특징은 자양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이 영양분이 가장 많을 때 그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빼앗아 가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세포보다 빨리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가져가는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게 암세포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의 암세포가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하는 에너지를 빼앗아 가서 말씀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좋은 것들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되고, 부모가 가시가 되고, 지식과 명예, 좋은 일들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든 것이 가시가 됩니다. 결국 그 가시가 우상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보다 빨리 자라는 가시가 마음에 덮여있을 때 이중적인 마음이 됩니

다.

좋은 땅, 순종하는 마음

넷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마 13:23).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한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처음 들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임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 가는 것입니다. 세 단계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30배의 열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씨앗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60배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동안 뿌려졌던 씨가 맺은 열매들을 추수하고 수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100배의 열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종류의 땅은 결정된 운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네 종류의 토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네 가지 토양이 모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단단한 길가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종류의 토양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자신 안에 네 종류의 토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C.S. 루이스가 영적 스승으로 여긴 분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과 설교를 통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극찬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 토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은 척박한 땅, 기근의 땅, 여기저기 잡초가 가득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기근이 있고, 얼마나 가시가 많고, 얼마나 큰 돌이 있고, 얼마나 단단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가시와 같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토양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좋은 땅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박혀 있는 엄청난 돌은 스스로 빼낼 수 없습니다. 가시도 스스로 뽑을 수 없습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여될 때 묵은 마음의 토양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도 변화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한 마음,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굳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있는 바윗돌과 가시덤불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태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이현석 이용호		이한오 이상경		정연태 문 찬		이미성 최경희		중종로		김대훈 최병선		Pole2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 가정사역		■ 동대문중앙		■ 서빙고		■ 양천		■ 이수		■ 선영군 이재욱		■ 전가욱 김현주		■ 임가은 박진영		■ 어린이일대일		수료예배: 5월 2일(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3부 예배			
김유경 우윤지		류현진 김용곤		이승주 곽승남		김형민 정도영		김옥하 박석재		조미경 조명자		정희정 강민주		■ SNS		■ 강승우 강은준		수료대상자는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진아 연미영		송영미 이연미		최은선 최미정		신용호 김득신		최문희 최영주		■ 찬양사역		■ 공동체 없음		■ 김진성 김주형		■ 김경서 김학수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상가대석 앞			
■ 강서		■ 동작		■ 성동광진		이희성 신재영		■ 황상두 신광필		■ 심혜영 김지연		■ 박민경 최황경		■ 문혜영 백현미		■ 류시현 김희경		대상자: 2021년 2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이원석 동두봉		김수연 강은실		김용화 장창근		정홍근 조현래		■ 이춘		■ 남미선 한미연		■ 박민정 권민정		■ 김유진 방주희		■ 유종민 김선영					
이향옥 문성희		김은현 안선주		김영진 성지은		■ 여의도		■ 심도희 지승빈		■ 이은주 홍인숙		■ 전혜진 박명애		■ 이경수 안길수		■ 정예준 정의석		서빙고			
황금복 오연수		■ 마포		■ 성북		■ 이강호 장세영		■ 이정훈 이기영		■ 임우빈 김성일		■ 임나현 정기숙		■ 이혜린 한은희		■ 정우석 안현주		■ 조희정			
■ 관악금천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강		■ 박성철 한정훈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김지희			
전병승 황태용		■ 북부		■ 성북		■ 고은정 김주은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김형준			
■ 김포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민영석			
차준호 정준영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송동진			
차지호 정우균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신미화			
■ 노원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신미리			
박소연 나순임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신정화			
■ 서대문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안경자			
서용호 김재호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유 혁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최다브리엘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한귀례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한기원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육동건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장로반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강호균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김정은			
■ 용산		■ 북부		■ 성북		■ 영등포구		■ 한성		■ 이정아 박유경		■ 김창민 주영진		■ 유선미 박은혜		■ 조예림 서미순		■ 이종형			



CGNTV

풍당

말씀이 쑥쑥, 신앙이 쑥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신앙 성장 솔루션,
풍당 키즈 콘텐츠와 함께하세요!

갓툰

카툰으로 하는 큐티,
'갓툰'으로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나눕니다.



버미제니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쉽고 재미있는 큐티를
돕습니다.



히즈쇼 - 왕의자녀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바이블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바이블맨과 함께 자녀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풍당에서 더 많은 키즈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풍당 Fondant' 앱 다운로드하기

